

전북의 근대한옥¹⁾

홍승재 / 원광대 건축학부 교수

1. 머리말

1928년 일본인이 쓴 「조선의 보고 전라북도 발전사」라는 책자에는 “전라북도는 근래 현저하게 행정, 경제가 발달하였고, 상공업·산업·교통·교육·위생 등 모든 기관이 정연하게 완성되어 신진의 전라북도라고 부를 만큼 일구획을 형성하는데 이르렀다. 현재의 전북과 20년 전의 전북을 비교한다면 격세의 감을 금치 못한다.”라고 당시 전북의 발전에 대해 적고 있다.²⁾

여기에서 그가 말한 놀랄만한 전북의 발전이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에 대한 평가를 뒤로 하더라도 이 글은 당시 전북지역이 20세기말과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변화에는 밀려오는 외세의 새로운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우리 스스로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사례를 통해서 볼 때 한옥은 1900년대를 전후하여 전시대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양상은 각 주거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모습 하나 하나가 시대적 변화에 적응해가는 한옥의 새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1900~1930년대에 건립된 전북의 근대한옥을 중심으로 근대한옥의 전통성과 근대성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³⁾

2. 근대부농주거의 사례와 특성

19세기말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북인구의 90%이상은 농민이었다. 일제는 1905년 한반도를 직접지배하게 되자 조선을 식량공급 식민지로 재편성하고 점유 농토를 확대해 갔다.

일본인의 토지 침탈은 전북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03년에 설립한 옥구의 웅본(熊本)농장을 위시하여 전주, 익산, 김제 등의 세천(細川)농장(1904), 石川농장(1908), 大橋농장(1907) 등이 이미 1900년 초에 1,000정보 이상을 소유한 거대지주가 되어 있었으며,⁴⁾ 1926년에 이르러서는 1,000정보 이상 소유한 도내 일본인 대농장의 수가 동양척식회사·교본·웅본·아부·다목·우근·석천·승부·정목 농장 등 9개에 이르렀다.⁵⁾

실질적으로 이들은 전라북도 농지의 80%이상을 소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규모 자작농들마저 소작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935년 당시 전북의 24만 농가 중에 1만2천 농가 즉 5%만이 자작을 하

1) 이 글은 한국건축역사학회 2005년 10월 월례학술발표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임.

2) 소순열, 일제강점기 전북의 경제와 농업에서 재인용, 「옛 사진속의 전북」 p.112, 국립전주박물관, 1998

3) 한옥의 근대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 성과가 있으므로 논외기로 한다.

4) 전라문화연구소, 전북학연구 II, p. 115, 1997

5) 동양척식회사는 국책농장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였으며 교본(하시모토)농장은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의 개간지를 중심으로 농장을 이루었다. 웅본농장은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부량면 옥정리, 정읍군 신태인읍 화호리 등에 농지를 확보했고 아부농장은 김제시 광활면 일대, 다목농장은 이완용이 소유했던 김제시 진봉면 일대의 토지를 사들여 농장을 이루었다. 우근 농장은 도내에 산재된 농장을 경영했으며, 승부농장은 김제시 청하면 일대의 농지를, 정목농장은 정읍군 신태인읍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고 있었다. 그 중 극히 일부는 고을의 소작료와 상업적 농업경영 등을 통하여 급격히 부를 신장한 부농들도 있었다.

당시 일본인 대지주들은 장대한 저택뿐만 아니라 집 주위에 개인우체국·학교·병원 등을 건립하여 마치 중세 영주를 방불케 하였으며 한편으로 조선인 부농들도 그들의 부에 맞추어 새롭게 주택을 건립하였다.⁶⁾

부농들의 주거는 기존 유교적 규범에 따라 건축된 상류주택을 모방함과 동시에 새로운 주생활을 수용하여 실생활을 중심으로 평면과 공간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전통적인 주거 공간이 근대적 사고와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의 정도는 건축주의 성향과 주변적 환경, 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중에는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주거 문화를 바탕으로 소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곳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한 새로운 주거형식 취한 곳도 있다. 이러한 변화 정도에 따라 주거를 분류하여 각 주거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전통의 지속과 소극적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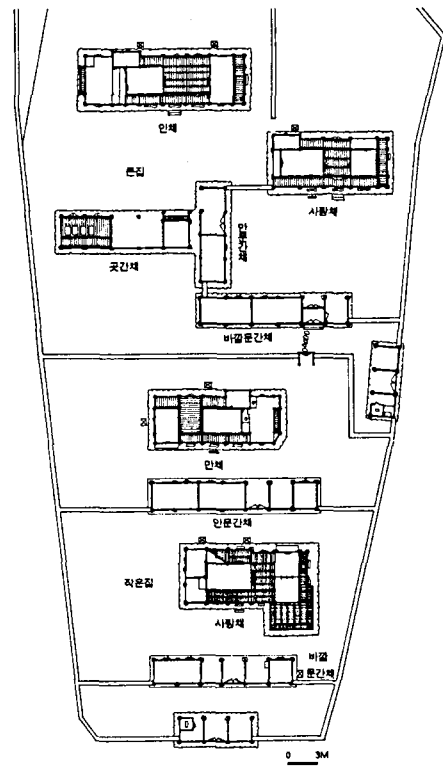
1) 인촌생가와 김상만가옥

두 가옥 모두 인촌 김성수와 관계가 있다. 한 집은 인촌의 생가이고 김상만가옥은 그가 유년을 보냈던 곳이다. 인촌가는 고창에서 살다가 1890년대 후반에 줄포로 이사 오게 되는데 김상만가옥은 그 때 지은 것이다. 인촌생가는 남북으로 긴 대지에 큰집과 작은집이 위아래로 자리하고 있다.

큰집은 안채·사랑채·곳간채·안문간채·바깥문간채·솥을 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은집은 큰 집에 비하여 곳간채만 없을 뿐 집의 규모나 격식은 큰 차이가 없다. 작은집 사랑채(1903년)를 제외하고 다른 채는 1861~1881년에 지었다.

이 집은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공간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 대지 안에서 큰집과 작은집이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각각의 집안에서도 남녀유별에 따른 공간을 구획하고 있다. 문간채와 문간마당, 사랑채와 사랑마당, 안채와 안마당과 같이 채와 마당이 짝을 이루어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것도 정읍의 김동수가옥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방 상류주택의 공간적 특징이다. 각 채의 평면은 이 지역 민가 형태처럼 일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안방 뒤편에 골방이나 도장방을 만든 것이 이 집의 특징이며 가장 늦게 지은 작은집 사랑채는 실이 겹겹화되어 내부공간이 커지며, 상류주택과 같이 전면에 누마루를 돌출시켜 권위와 부를 과시하였다.

김상만가옥은 인촌생가보다 2~30년 늦게 건축되었다. 집은 안채·사랑채·바깥사랑채·사랑채·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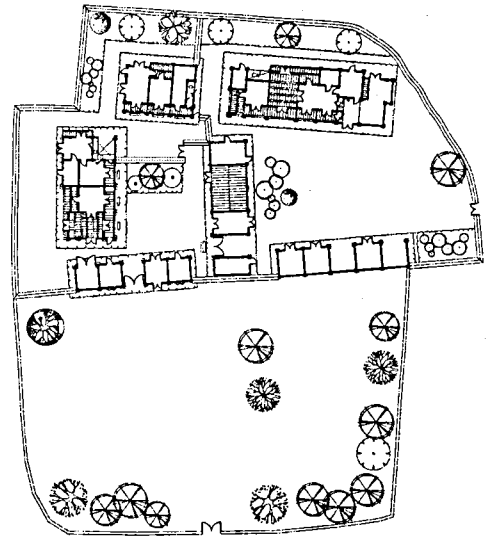
인촌선생생가 배치도

(문화재연구소, 민가조사보고서 전남·전북편, 1994)

6) 예를 들면 미쓰비시계열의 총수인 이와사키는 반월리라는 명칭을 없애고 새로 동산촌이라 이름을 붙였다. 그 안에는 그의 장대한 저택, 개인 우체국, 사설학교, 사설 경찰서까지 설립하였다. 마치 동산촌은 한 일본인이 촌락인 1,700여명의 소작인을 지배하여 일국의 왕국과 같았다.(소순열, 일제강점기 전북의 경제와 농업)

채·곳간채 등 모두 6동의 초가로 이루어졌다. 안채는 정면 6칸 반에 전후퇴가 있는 일자집이다. 이 지역 민가 처럼 부엌, 큰방, 대청, 건넌방 순으로 간잡이를 하였으나 세부 구성에는 변화가 있다. 우선 부엌이 큰 살림을 하는 집답게 4칸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칸에는 부엌방을 드리고 찬마루도 만들었다.⁷⁾ 이와 같이 부엌 내에 부엌방, 찬마루와 같은 작업공간과 찬광과 같은 수장공간을 마련하여 작업에 효율성을 꾀한 것이 근대부농주거의 특징이다. 찬마루에서는 부엌물품을 올려놓거나 상차리기, 걸터앉아 작업하기, 찬만들기 등 여러 기능이 이루어졌으며 부엌방은 부엌과 안방을 연결하였다. 이곳은 식모·찬모의 기거, 찬만들기, 상차리기, 배선작업시 사용하였고 찬방의 기능만으로 쓰이기도 했다.

큰방은 두 칸이며 뒤퇴 한 칸은 골방을 마련했다. 바깥사랑채에서도 방 뒤에 작은 골방이 있으며, 건넌방 옆에도 바닥에 마루를 깔 도장을 두고, 뒷벽에는 벽장을 만들었다. 방 주위에 이처럼 퇴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장공간을 구성한 것이 이 집의 특징이다.



김성만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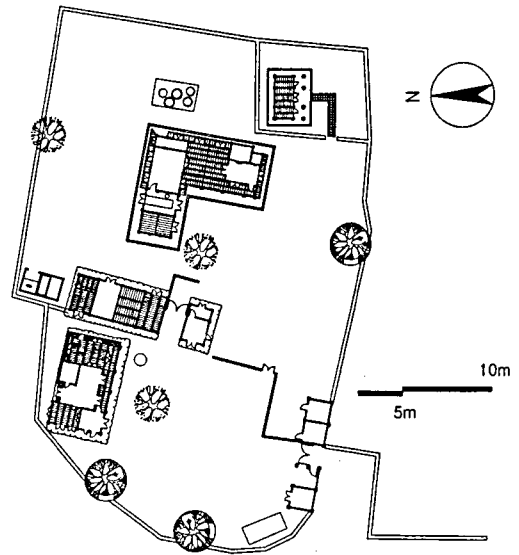
2) 장현식가옥과 정상윤가옥

장현식가옥과 정상윤가옥은 1930년대 지어진 주거이다. 장현식 가옥은 안채를 1932년에 새롭게 건축하였고, 정상윤가옥은 1938년에 집 전체를 새로 지었다. 두 가옥은 모두 주위에 같은 씨족들의 집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집성촌에 자리하고 있다. 장현식가옥은 인동장씨 금구파의 종가이며, 정상윤가옥이 있는 사계리는 유현(游軒)정황(丁煌, 1512~1560)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창원 정씨 씨족마을이다.

두 가옥은 모두 씨족 간에 혈연에 의한 사회적관계와 종법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씨족마을 내의 주거여서인지 전체적인 공간구성 등은 전통적인 상류주택의 공간구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채와 사랑채 등의 평면과 꾸밈 등에서 부분적으로 그 시대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다.

장현식가옥은 사랑채, 안채, 문간채, 중문간채, 사당, 목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류주택의 공간구성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 영역이 중문간채와 담을 경계로 나뉘어 있고, 안채 뒤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도 세워져 있다.

안채는 ㄱ자형 팔작집이다. 소위 서울지방형 민가의 평면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장현식⁸⁾이



장현식가옥 배치도

7) 홍승재, 한국의 건축문화재 (전북편), pp240-241, 기문당, 2005.

8) 장현식은 1896년 9월 17일에 태어났다. 항일 구국의 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인촌 김성수와 함께 현 중앙고등학교인 사립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 1919년 비밀결사인 대동단(大同團)이 창단되자 대동단의 운영사금을 제공하고 대동

새로 건립하면서 서울에서 활동하며 체험하였던 서울지방의 민가형식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안채는 일자집으로서 사랑채와 같은 좌향을 취하여 남향하였었다. 그러나 ㄱ자형으로 안채를 건립하면서 안채의 좌향은 서향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침과 사당과의 관계도 변하였다. 안채의 평면을 살펴보면 대청을 가운데 두고 안방과 건넌방이 마주하며 안방 전면에 부엌이 위치한다. 사방에 툇마루 또는 쪽마루를 시설하여 각 실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어 19세기말 이후 한옥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대청은 전면에 분합문 대신 유리미서기문을 설치하였고 뒤쪽에도 판문대신 유리를 끼운 用자형분합문을 설치하여 대청을 거실화 하였다. 또한 평면에서는 기둥의 간격을 모듈화(8자)하여 계획의 합리성을 취하였으며 부엌에 넓은 찬마루를 두어 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부엌과 안방 간에 직접 통하는 문을 설치한 것도 전시대의 한옥에서 쉽게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이전의 한옥에 비하여 건물의 높이가 높아졌으며, 부엌 상부에 넓은 다락을 구성하고 다락에 채광을 위하여 유리창을 전후면에 모두 시설한 것도 이 집에서 보이는 근대성이다.

반면에 안채보다 건립연대가 앞서는 사랑채는 보다 보수적인 모습이다. 사랑채는 정면 4칸의 일자집으로서 전후퇴집의 구조이다. 실의 구성을 보면 방과 대청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모습이나 좌측 방 후면의 1칸은 아궁이 상부에 누다락을 높게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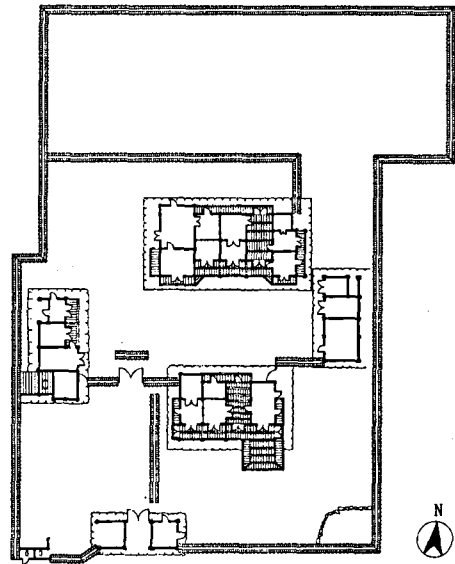
정상윤가옥은 안채와 사랑채의 영역이 담장으로 완전히 구획되어 있으나 안마당에 면한 사랑채 배면에 쪽마루를 시설하여 사랑채와 안채와의 공간적 연결을 편리하게 하였다.

대문을 들어서면 ㄱ자형의 담장이 마당을 구획한다. 전면 담장에는 안채로 통하는 중문이 있고 사랑마당과 행랑마당을 구분 짓는 토석담장은 안채로 동선을 유도하며 출입 시 사랑채와 시선을 적당히 차단시켜 준다. 안마당 좌우에는 곳간채와 행랑채를 안채와 직각으로 배치하여 주생활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변화는 양상을 보여준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팔작집이다. 잘 다음은 초석과 두리기둥 및 넉넉한 부재에서 당시의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다.

평면은 각 실들을 두 줄로 배치한 겹집형이다. 평면은 정지, 방, 대청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지 앞에 부엌방이 있고 뒤쪽의 실들은 수장 공간으로 활용한다. 사방에 모두 툇마루 또는 쪽마루를 설치하여 평면적으로 각 실을 연결하였으며 외부에서의 출입의 편리성도 꾀하였다.

일반적으로 겹집형 주거는 보관이 길어지므로 지붕도 따라서 높아진다. 이 때 가구구조를 그대로 이용하여 지붕 밑에 다락을 구성하는데 이 집은 연등천장으로 꾸며진 대청과 부엌, 마루를 제외하고 모든 실위에 다락을 설치하였다. 특히 좌측 방 상부 다락은 네 칸을 모두 터서 각 칸마다 단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다락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랑채는 한 칸의 누마루가 전면으로 돌출된 ㄱ자형 평면이다. 안채와 같이 두 줄로 실을 배치한 겹집형 평면으로 전면은 사랑방·대청·옷방·큰사랑방 순으로 실을 구성하였으며 뒤쪽은 벽장과



정상윤가옥 배치도

신문(大同新聞) 발간의 재정운영을 담당하다 체포되어 1921년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39년에는 조선어사전 편찬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함흥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이후 해방과 함께 풀려나 제 2대 전라북도지사로 재임하였으며 한국전쟁시 납치되어 행방을 알 수 없다. 1989년 건국포장을 수여받았다.

골방·옷방 등을 만들었다. 사랑채도 대청과 누마루를 제외한 모든 실 상부에 다락을 시설하였다.

이처럼 정상윤가옥은 안채와 사랑채 모두 전체 평면의 60%이상을 다락으로 구성하여 단면상으로 보면 실질적인 2층집이다. 평면의 겹집화와 함께 높아지는 지붕 구조를 이용하여 부엌뿐만 아니라 실의 상부에 넓은 다락을 구성하는 것은 근대한옥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2.2. 적극적인 한옥의 근대화

1) 함라마울의 부농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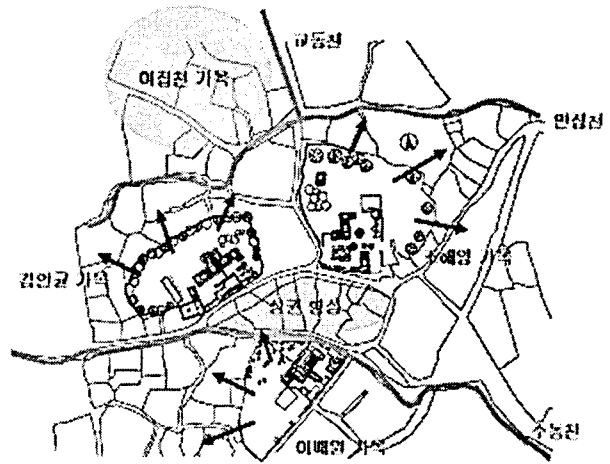
함라마울은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에 위치한다. 이 마을은 마을의 중심부에 소위 만석꾼의 집인 근대 부농주거 4가옥(이배원가옥, 조해영가옥, 김안균가옥, 이집천가옥)이 천을 따라 각각의 구역을 형성하며 이웃하여 자리하고 있다.

향토지에 따르면 함열지역에는 만석꾼의 거부가 3호, 천석 이상의 부호가 4호, 백석 이상의 부호가 20여 호 거주하였는데 그 중 만석꾼 3호가 이 마을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농업경영과 상업 및 기업 경영 등을 통하여 급격히 부가 신장된 부농층이다.

조선 후기 이후 향촌사회의 지배층이었던 부농들은 크게 두 가지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봉건적 지주의 성격을 띤 지주형(地主型) 부농층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후기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력의 증가와 상업적 농업경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여 새롭게 상류층의 일원이 되는 부농층들이다.⁹⁾ 이곳 함라마울의 부농들은 김안균가 외에는 후자에 속한다. 그들은 직접 농업경영에 참여하였으며, 경영규모가 확대될 경우에는 경영자·관리자의 위치에서 많은 고용노동을 이용하여 농업생산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대의 유교적 실천윤리를 절대이념으로 하던 양반층과는 달리 가사생활에서 농작업 및 농사경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함라마울 부농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상업·축산업·정미업 등 여러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¹⁰⁾

그들은 이러한 부를 바탕으로 1917~1930년 초에 대규모 주택을 경쟁적 관계 속에서 건축하는데 이들 주거는 전시대의 상류주택의 공간구성을 따르면서 배치 및 평면계획에서는 근대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함라마울의 공간구성

가. 마을의 공간구성

9) 김용섭은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부농층을 그들의 출신배경과 농업경영형태에 따라 지주형부농과 경영형부농으로 나누었다.(조선후기 농업사연구(2), 일조각, 1990)

10) 조해영가는 1923년에 조용규농장을 설립하였으며, 익산, 옥구 등지에 많은 토지와 소작인 540명, 사슴 12명을 두었다. 조용규는 대륙호모산업의 대주주로 있었으며 아들 조해영은 호남산업과 조선수출공예의 이사와 대주주였다. 이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상업, 정미업 등을 통해서 빠르게 부를 확장하였다. 김안균가는 4대 조부인 김기형과 아들 김석중이 현감을 역임하며 부의 기반을 다졌다. 1926년에 김병순이 1926년에 함화농장을 설립하였으며 부동산 30만원, 토지 8000두락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장남 김해균은 황등산업과 대평건물의 이사와 감사를 역임하며 박홍식 등과 함께 제계, 실업계의 경성재산가에 포함될 정도로 부를 이루었다. 반면에 이배원가는 부친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상업을 통해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농토를 매입하여 1925년에 이배원이 삼성농장을 설립하였다. 이배원은 김병순과 함께 전북 축산과 황등산업의 대주주와 이사를 겸임하며 농업 외에도 축산업과 농림업에도 관여하였다.

합라는 교동천·안정천·수동천을 경계로 갈마동, 행동, 천남리, 천북리, 수동, 안정리, 교동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합라지역은 수동이 과거 읍치의 중심으로 여기에는 객사와 동헌, 향교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마을 입구에 부농들의 주거가 밀집하여 자리하면서 마을의 새로운 중심을 형성하게 된다. 이 마을의 대표적인 부농인 이씨, 조씨, 김씨가옥은 천남, 안정, 천북에 각기 영역을 달리하여 위치하였다. 각 가옥은 부가 늘어남에 따라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데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영역을 확대시키며 서로 충돌을 피하였다. 특히 가장 먼저 지은 이배원가옥의 경우는 더 이상 그곳에서 영역을 확장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이집천) 대에 세 가옥이 내려다보이는 안정천 넘어 높은 곳에 별장과 같은 대규모 주택을 신축하게 된다.

각 가옥 주위에는 소작인과 일꾼들이 주거를 형성하였고 세 가옥의 중심부에는 상권이 형성되면서 각 가옥간의 영역확장의 완충적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합라마음은 부농의 성장으로 인하여 마을의 전통적인 공간구조가 해체·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나. 이배원가옥/ 조해영가옥 / 김안균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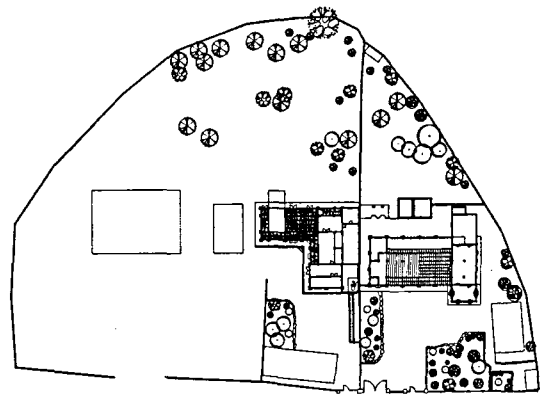
1917년 이배원가옥을 시작으로 1918년 조해영가옥, 1922년 김안균가옥까지 합라마음 부농가옥은 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웃하여 계속해서 건립되었다. 가장 먼저 지은 이배원가옥은 조부 이석순이 지은 4칸 초가는 그대로 두고 안쪽에 안채와 사랑채 등을 건립하였다.

조해영가옥은 초가였으나 1918년에 조용규가 안채와 사랑채를 새롭게 건축하였으며 1920년경에 양옥사랑을, 1933년에는 조해영을 위한 신방으로 새방채를 건립하였다. 그 후에도 이 집은 1937년에 농장사랑과 사당, 양할아버지를 위한 새집채 등을 계속해서 증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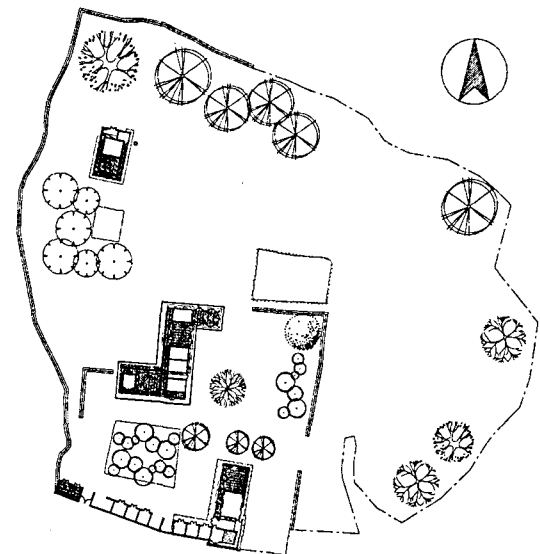
김안균가옥은 1922년에 김병순이 안채와 사랑채를, 1930년에 대문간채와 행랑채를 건립하였다.

4가옥 중 가장 늦게 이집천가옥(이배원의 장남)이 1930년대 초에 세 가옥이 내려다보이는 마을의 높은 곳에 건립되었다. 이 집은 집안이 쇠락하면서 건물들을 해체 매각하여 그곳에는 대문 기둥만이 남아있지만 전하는 바에 따르면 대규모 연회용 별장인 '윗산정' 그 밑에 전망용 육각정인 '가운데 산정' 그 아래 서벽정이라 불리는 '아랫산정'이 있었고, 살림채와 온실까지 갖춘 대규모 주택이었다고 한다.¹¹⁾

당시의 전체적인 건축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이집천가옥을 제외하고 세 가옥을 비교해 보면 의장 및 공간구성, 평면형태 등에서 유사성과 함께 가옥마다의 독창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배원가옥 배치도



조해영가옥 배치도

11) 당시 이리, 군산 등지에 살던 일본인들도 이곳을 자주 찾아 구경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당시 그림엽서에도 이 산정의 전경사진이 소개될 정도로 장관이었다고 한다.

세 가옥은 모두 상류주거를 모방하면서 규모와 화려한 치장 등을 통해 부를 과시하였다.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는 담장은 꽃담으로 꾸며지며 ㄷ자형난간, 공포, 문 등을 통해 고도의 미적 감각과 세련미를 보여준다. 한편으로 외관에서는 유리나 벽돌 등 근대적 재료를 이용한 새로운 의장적 표현도 나타난다.

이배원가옥과 김안균가옥은 유교적 관습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를 내담장을 쌓아 외적으로는 마당과 공간을 분리하였으나 내부는 복도를 통해 두 채의 평면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기능적 편리함을 취하였다. 이는 먼저 지은 이배원가옥의 연결 복도를 김안균가옥이 차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해영가옥도 역시 안채와 사랑채가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나 사랑채의 한쪽 날개부는 여성들이 거처하는 실질적인 안채영역이다. 복도에는 사랑채 영역과 구분 짓는 문도 시설되어 있어 완전한 독립된 공간으로서 활용되었으며 이곳을 침방채라 불렀다. 침방채는 수리하면서 실의 구조가 변하였지만 본래는 부엌·방·마루로 실이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살림채로서 최소한의 구성을 갖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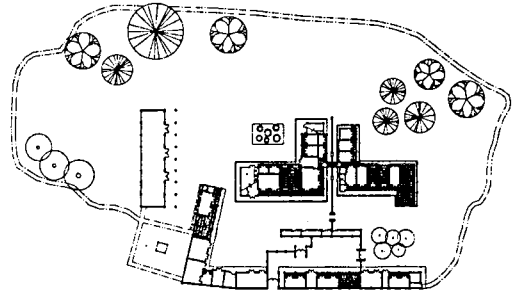
또한 이 집에서는 침방채와 이어지는 가운데 몸채를 큰사랑채, 누마루 부분을 월방채라 나누어 부르고 있다. 이처럼 조해영가옥의 사랑채는 한 채를 이루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당시 가운데 큰 사랑채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공간¹²⁾이었으며 누마루와 방이 있는 월방채는 집안의 가장 어른이었던 할아버지가 사용하였다고 한다. 누마루는 세 가옥 모두 사랑채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누마루의 크기는 나중에 지어질수록 점차 증대되는데 이는 서로를 의식한 경쟁적인 건축 결과로 보여진다.

사랑채는 안채에 비해 주거의 형태나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근대화를 수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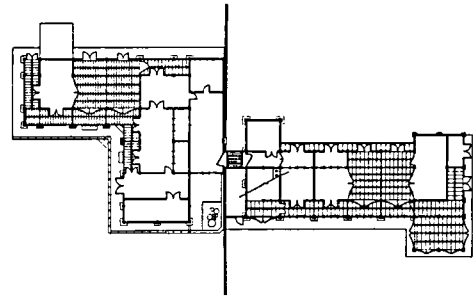
사랑채에 나타나는 근대성을 살펴보면 먼저 마루 끝에 유리문을 달아 마루를 내부공간화 하였고, 고막이와 박공, 내담과 굴뚝 등에 벽돌을 사용하며 의장적 요소로 활용하였다. 평면에 있어서는 전술한 안채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있고, 또한 조해영가옥과 같이 김안균가옥의 사랑채도 ㄷ형으로 평면을 계획하여 몸채와 양 날개부를 나누어 침실과 거실, 누마루로 활용하였다. 한 건물 안에서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면서도 각 실을 마루로 직접 연결하여 편리함을 추구하는 합리성을 보여준다.

한편 조해영가옥은 사랑채 서쪽 뒷마루에 현관을 부설하고 있다. 이는 일식건축의 영향으로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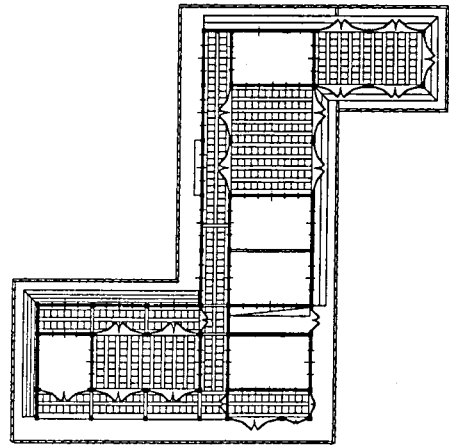
12) 이 집은 중요한 손님은 이곳 큰사랑채에서 모셨고, 보통 사람들은 양옥사랑에서 손님을 모셨다고 한다.



김안균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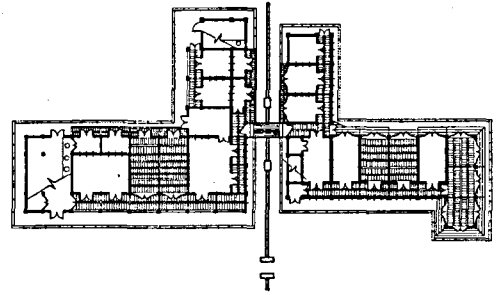
이배원가옥 안채·사랑채 평면도



조해영가옥 사랑채 평면도

진다. 조해영가옥은 농장사랑이 완전한 일식건물이며 없어진 양옥사랑도 비늘판벽과 다다미방을 구성하여 일식건축의 요소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세 집 모두 안채는 평면이나 외관에서 전통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농장의 직접 경영과 농업규모가 확장되면서 안채의 규모가 증대되었고 안채 내에 수장공간이 발달하였다. 특히 부엌이 확대되면서 부엌과 관련된 부속실 및 광채들이 부엌과 연결이 용이하게 안마당 주위에 적절히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김안균가옥과 이배원가옥은 부엌 옆에 별도의 밥창이 있었다고 한다.



김안균가옥 안채·사랑채 평면도

2) 2층 한옥 (전희준가옥 1924/ 황병주가옥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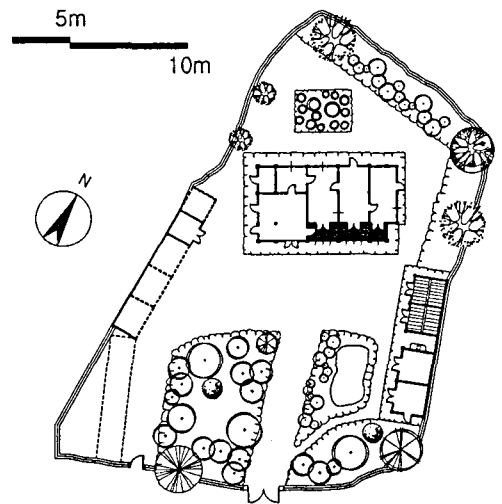
20세기 초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2층 한옥상가들이 지어지며 도시와 농촌에서는 아주 드물게 2층의 한옥집도 지어졌다. 전희준가옥은 1924년, 황병주가옥은 1936년에 건립되었다.¹³⁾

전희준가옥은 진안에서 마령간 지방도 변에 있는 원강정마을에 위치한다. 이 집은 집주인의 조부가 인근 오동마을 큰집에서 분가하며 지었다고 한다. 당시 큰 집은 수확이 300석 정도였으며, 이 집도 내외작 포함하여 100석 정도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집은 농사뿐만 아니라 구 장터에서 큰 가게를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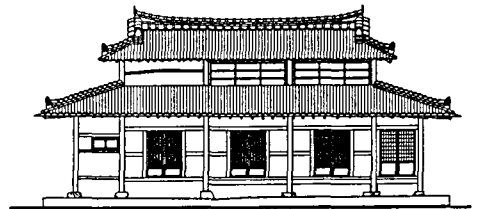
그러한 재력을 보여주듯 안채를 2층집으로 지었다. 넓은 터에 안채와 사랑채, 부속사가 안마당 주위에 배치되어 있고 뒤안도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안채는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방주를 세웠다. 간살을 보면 아래층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구조에 전면과 좌우측 삼면에 퇴가 둘러 있는 구조이며 위층은 아래층 내진 기둥이 그대로 이어져 상층 기둥이 됨으로써 정면 3칸, 측면 1칸의 구조이다.

아래층은 전퇴에 마루가 시설되어 있고 우측퇴도 본래는 마루였으나 지금은 퇴를 늘려 방으로 사용한다. 집은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조되었는데 특히 부엌을 입식으로 개량하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칸칸이 나뉘어 있던 방도 앞뒤를 하나로 터서 크게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평면구조를 살펴보면 서쪽 끝에 부엌이 있고 부엌 뒤에 부엌방과 같이 작은 방을 드렸다. 그 옆으로 세 개의 방이 이어지는데 방들은 전후 두 칸의 크기로 장방형형태이다. 방 앞에는 모두 마루가 있고 마루 끝에 유리미서기 샷시문을 설치하였다.

본래 이집은 곁집형 평면이었다. 부엌 뒤에 방이 있듯이 안방 뒤에는 마루가 있고, 옷방도 칸



전희준가옥 배치도



전희준가옥 입면도

13) 2층 한옥으로는 1936년에 건립된 청양 미당리 정갑희씨택 별당채와 보령 마강리 이주성씨택 별당채가 있다. (대한건축학회, 미지정문화재건축물 실측조사보고서1, 1987)

을 나누어 작은방이 뒤에 있었다. 안방에서 부엌 쪽으로 2층에 오르내리는 계단이 있었지만 부엌을 입식으로 개조하면서 계단을 없애고 지금은 이동 사다리를 놓고 오르내린다.

2층은 모두 3칸이다. 출입구가 있는 서쪽 끝 칸은 다락과 같이 수장공간으로 쓰고 나머지 두 칸은 텅 있다. 바닥은 널마루가 깔려 있는데 이전에 이곳은 누에를 키우는 잠실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2층은 앞 뒤 벽면 모두에 유리미서기창이 있어 내부가 밝고 통풍이 잘된다. 천장은 연등 천장으로 가구구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대들보 위에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는 단순한 3량 구조로서 전통적인 가구수법을 사용하였다.

지붕은 양곡이 거의 없는 홑처마 팔작지붕에 골슬레이트를 얹고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기와를 꾸몄다. 본래는 함석지붕이었는데 중간에 기와를 이었다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지금과 같이 슬레이트로 바꾸었다고 한다.¹⁴⁾

황병주가옥은 김제시 죽산면 증신리에 위치한다. 2층 한옥으로서 낮은 시멘트기단 위에 덩병주초를 놓고 방주를 세웠다. 기둥 상부는 장여가 없이 기둥, 보, 창방이 직접 결구되는 민도리 구조이다. 1층은 정면5칸×측면4칸이며, 2층은 정면4칸×측면3칸으로 구성하였는데 주간이 일정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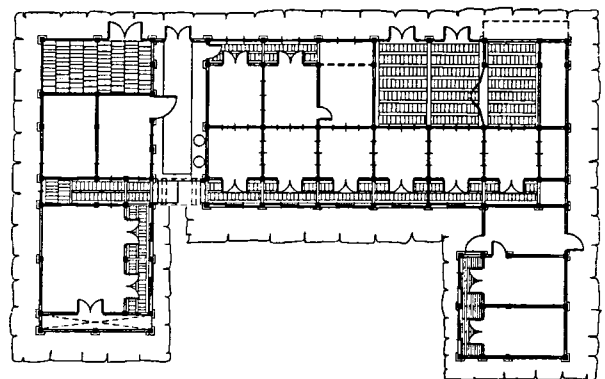


황병주가옥

가구는 1층 보 위에 상층 변주와 고주를 세운 2고주 5량 구조이다. 현재 내부는 개조된 상태로 거실에서 직접 계단을 통해 2층에 오를 수 있다. 2층은 바닥이 장마루이며 전후면 벽체에는 유리 미서기창이 설치되어 있다.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배면의 벽체 구성이나 지붕의 모습을 볼 때 일식건물의 느낌을 주나 가구의 수법 등은 전통적인 구법을 사용하였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에 일식 시멘트기와를 올렸다.

3) 장갑순가옥(1936년,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이 집은 당시 만석꾼이었던 박희옥씨의 사랑채로 지어졌다고 한다. 도로에 면하여 ㄷ자형 건물이 마당을 감싸듯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집 뒤에 안채와 부속사가 있다. 지붕이 하나로 이어지는 겹처마 팔작집으로서 만석꾼의 부를 과시하듯 매우 규모도 크며 넉넉한 부재를 사용하였다.



장갑순가옥 평면도

본래는 높이 80cm 정도의 장대석기단이 있었으나 전면 도로 높이에 맞추어 마당을 돋우면서 기간부가 묻혀서 당당하던 모습이 많이 위축되었다. ㄷ자형 평면은 몸채는 9.5칸×3칸의 규모이며, 몸채에서 동측은 1.5칸×3칸이 돌출되었고 서측은 2칸×2칸이 돌출되어 날개부를 이룬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에서도 이 정도 규모는 찾아보기 어렵다.

ㄷ자형 또는 ㅁ자형 상류주택에서 몸채는 대개 정면 5칸이 보통이고 조선 후기에 지어진 논산 윤

14) 줄고, 원강정마을의 살림집과 재각, 「진안의 8대명당 원강정마을」, 문화관광부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pp70~72, 2001

층 고택도 7.5칸의 규모이다. 특히 보칸의 길이도 2칸이 보통이나 이 집은 몸채 부분의 모든 실들이 2줄로 배열된 양통집이며, 전후에 퇴를 구성함으로써 보칸의 길이가 3칸에 이르는 매우 큰 규모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내부공간의 확대 필요에 따른 것으로 한옥의 근대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면에 모두 뒷마루를 시설하였고 마루 끝에는 유리 분합문을 설치하여 뒷마루를 복도로 사용하고 있다. 부엌은 3칸인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안방 뒤쪽에 공간을 덧달아내어 만든 입식 부엌을 사용한다. 부엌 동측에는 전면에 모두 방을 배치하고 뒷 열에는 3칸의 방과 대청 2칸, 도장방 등을 계획하였다. 방은 전면에 모두 2짝 분합문을 설치하였고 방과 방 사이는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모두 공간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상류주택에서는 평면의 중심에 넓은 대청을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 집은 대청이 방 뒤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면적도 퇴칸까지 합쳐 3칸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공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이며 대청의 공간적 성격도 거실의 성격을 띤다.

동측 날개는 부엌과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 앞에는 뒷마루를 설치하였다. 집주인의 말에 의하면 이곳은 본래 가축을 기르는 곳이었으나 지금과 같이 개조하고 세를 주었다고 한다.

부엌의 서측은 커다란 욕실과 욕실에 딸린 방, 뒤쪽에는 2칸의 고방이 있으며 뒷마루를 사이에 두고 2칸의 방이 전면으로 돌출되어 서측 날개부가 된다. 부엌을 경계로 나뉜 두 공간은 구름다리 모양으로 뒷마루를 연장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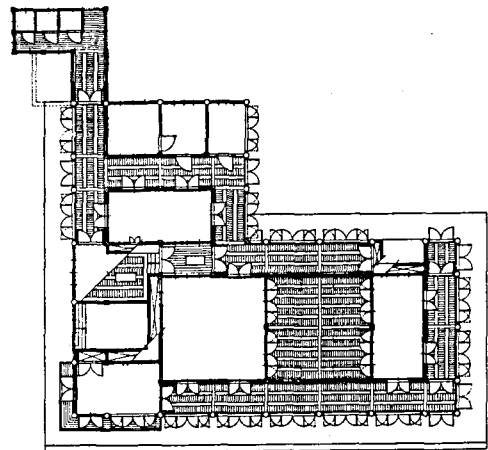
이와 같이 장갑순가옥은 독특한 평면구성과 규모뿐만 아니라 실들의 세분화, 건물 내부에 욕실 설치, 뒷마루 전면에 유리문 설치 등 한옥의 근대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 근대도시한옥

1) 학인당(1908)/ 조정순가옥(1939)

주지하다시피 전주 교동, 풍남동 일대는 도시형 한옥이 집중 분포하여 독특한 도시경관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1930년대를 전후하여 호남평야에서 부를 축적한 대소지주와 근대화 바람을 타고 상업 등으로 자본을 축적한 신흥자본가들이 이 곳에 한옥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 일대는 근대한옥의 밀집 지구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주 한옥마을 일대의 주거들은 대부분 건립 년대가 30-50년대이나 학인당은 1908년에 건립되었다.

학인당은 전체적인 평면형태가 일자형 몸체에 뒤쪽으로 실이 부가된 ㄴ자집이다. 몸채는 외관상 정면 8칸, 측면 4칸의 모습이나 주간의 길이로 볼 때 정면 6칸, 측면 2칸의 내진주 위에 모두 퇴를 돌리고 마루를 깔아 각 실을 연결한 형태이다. 몸체의 평면은 부엌,



학인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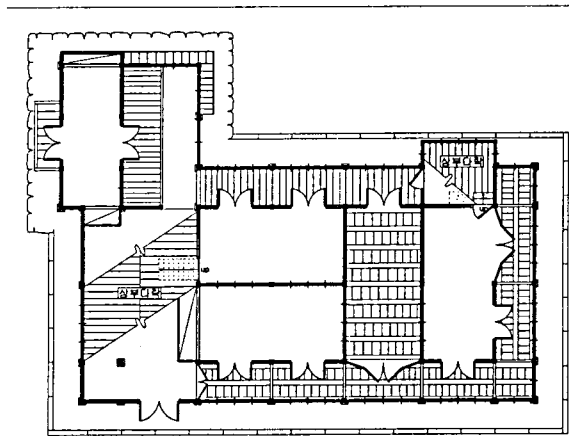
안방, 대청, 건넌방 순으로 실을 배치하여 이 지역 민가의 실 구성을 따랐다. 부엌 앞에는 머릿방을 두었는데 이와 같이 부엌 앞에 방을 두는 것이 전주 한옥마을 주거들의 일반적 특성이다. 전주의 근대한옥들은 부속채가 있기도 하지만 많은 주거들이 안채 한 동으로 이루어졌다. 농가에서는 농작업에 필요한 부속채가 필수적이지만 도시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속채를 건립하지 않고 안채가 보다 많은 기능을 수용하여 규모가 확대되고 평면이 겹집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부속채가 없으면 부족한 수장공간은 다락에서 해결하였다. 학인당은 안방 뒤에 마루 한 칸을 막아 마루방을 두었는데 이 방을 통해 다락에 출입한다. 다락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 공간을 만든 것이다. 다락은 부엌과 광 상부뿐만 아니라 안방 위까지 단차를 두어 넓게 구성하였다. 다락에 채광을 위하여 지붕 박공면에 광창을 만들어 새로운 입면구성을 보여준다.

도시한옥은 농촌의 주거와는 달리 부엌의 면적이 줄어든다. 학인당도 부농주거에 비하여 부엌 자체 면적은 작지만 창고와 부속실을 인접 배치하여 부엌작업과 배선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학인당은 복도나 마루를 통해 각 실을 서로 연결하면서 기능별로 공간을 구분하였다. 몸채에서 달아낸 ㄴ자 날개 부분에는 뒷방, 서재, 세면실, 욕실이 있다. 여기를 지나면 나중에 증축된 화장실로 이어진다.

학인당은 전통을 바탕으로 기능의 합리성을 추구한 근대적 계획수법이 돋보인다. 기능에 따른 공간의 구분(Zoning)과 주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모듈화 한 계획의 합리성, 마루의 내부공간화, 주거 내에 세면실과 화장실의 도입, 복도와 마루를 통해 각 실의 평면적 연결 등 전시대 주거와 비교해볼 때 새로운 평면수법을 보여준다.

조정순가옥도 학인당과 전체적인 평면의 형태나 구성의 방식이 유사하다. 조정순가옥은 김제시 신평동에 위치한다. 이 가옥도 정면에서 보면 일자집이나 뒤쪽으로 실을 덧달아낸 ㄴ자형 평면이다. 기둥의 배열을 보면 완전한 겹집의 구조이며 정면 5칸, 측면 2칸의 주위 사방에 반 칸의 퇴가 둘러있는 구조이다. 퇴에는 모두 마루를 시설하고 마루 끝에 유리문을 설치하였다. 실의 구성은 학인당과 같이 부엌과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이어지는 호남지방 민가와 같은 구조이며 여기에 뒤쪽으로 실을 덧대어 침방을 구성했다. 침방은 전면에 반 칸만 마루를 깔아 몸채 뒷마루와는 마루가 끊어져 있다. 예전에 여기에 침모가 기거하였으므로 침방은 부엌과 보다 밀접하다. 그러므로 부엌과는 직접 통할 수 있게 하였다. 일자집에서 기능에 따라 평면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처럼 몸체에 실을 부가하는 것이다. 전북의 근대한옥들은 다른 주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로 뒤쪽으로 실을 부가하여 뒷마당을 감싸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정순가옥의 경우 뒷마당에 장독대가 있고 그 뒤로 넓은 텃밭이 조성되어 있어 부엌에서 쉽게 통할 수 있도록 침방 전면에 뒤안으로 통하는 유리미서기문이 있다.



조정순가옥 평면도

이 집도 부엌 상부에 넓은 다락이 있다. 다락은 안방 뒤에 있는 방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다. 다락은 전면과 후면 벽 전체에 유리창을 달아 밝고 층고도 충분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근대한옥은 평면이 겹집화 되면서 목구조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지붕의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붕 밑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한옥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면뿐만 아니라 단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옥의 이러한 변화는 외관으로도 표출된다. 부엌 상부 다락의 창이 전면에서 노출되며, 학인당과 같이 박공면에 창문이 설치되기도 한다. 건물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처마는 훌처마로 처리하여 처마 끝에 함석으로 차양을 다는 것도 근대 한옥의 특징이다. 이 집은 이러한 근대 한옥의 일반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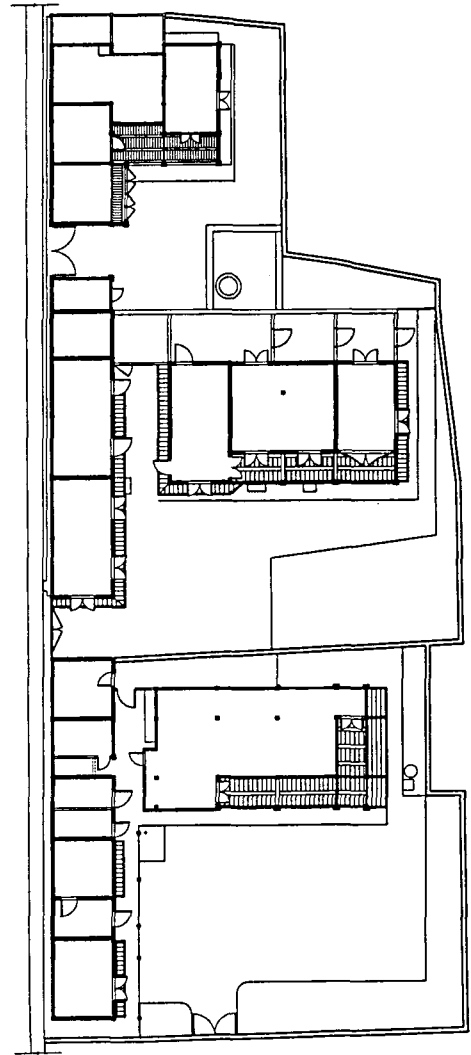
2) 삼원한약방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위치하는 이 집은 가로와 필지형태 그리고 건축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주는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1938년에 가로망 골격이 완성된다. 상량문에 따르면 이 집은 1937년에 건축되었다.

이 집은 가로에 면하여 17칸의 행랑채가 남북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다. 행랑채의 외벽은 하부가 붉은벽돌치장쌓기 한 화방벽이고 상부는 창호와 회벽으로 되어 있다. 행랑채 중심에서 우측으로 치우친 곳에 대문이 있다.

집은 전체적으로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된다. 가운데 안채가 있고 전면에 사랑채, 후면에 현 집주인의 할머니가 사용하던 어머니집이 있다. 각 채는 행랑채와 직각으로 배치하여 남향하고 있고 각각의 마당을 갖고 있다. 외적으로 보면 한 집이지만 각 영역이 독립성을 갖는다. 그러나 안채와 사랑채는 행랑채와 한 칸이 떨어져 있어 각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안채와 사랑채의 평면은 일자집으로서 전후퇴집의 구조이다. 현재는 내부가 많이 개조되어 정확한 원형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안채는 4칸집으로서 다른 한옥마을의 주거처럼 부엌 앞에 정지방이 있고 그 옆으로 안방, 대청, 건넌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마루 끝에 유리미서기문을 설치하였고 정지방과 건넌방 옆에는 쪽마루를 시설하였다. 구조는 장대석 외벌대 기단 위에 방형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다. 홀처마 팔작지붕에 시멘트기와를 올렸으며 지붕 끝에 함석차양을 돌렸다. 현재는 세 채가 각각 분리되어 소유자가 다르다.



삼원한약방 배치도

4. 맺음말

한옥은 1900년 이후 변화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본고는 1900~1930년대에 건립된 전북지역 근대한옥을 중심으로 한옥의 새로운 모습들을 고찰해 보았다. 크게 근대부농주거와 도시한옥으로 분리하여 고찰하였으나 근대도시한옥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를 다루지 못하고 3채의 주거를 통하여 도시화와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만을 살펴보았다.

근대도시한옥과 근대부농주거는 외관의 일반적 변화 외에도 평면의 겹집화와 마루와 뒹마루를 통한 각 실의 연결, 기능에 따른 공간의 구획, 다락의 다양한 구성 등 공통적인 특성도 보여주면서 도시한옥은 도시한옥대로 부농주거의 부농주거대로 각각의 근대성과 전통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변화의 현상들은 주거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몇 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한옥의 근대성과 시대적 특성을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타 지역의 사례 등과 비교를 통하여 근대한옥의 보편적인 특징과 전북지역 근대한옥의 특수성이 같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대한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현상을 살펴보고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주거의 변천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며 또한 변화의 과정이 곧 전통주거건축의 자생적 근대화과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